

TV 건강프로그램의 ‘노화의 의료화’ 의미화 방식:

KBS <비타민>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주미* · 한혜경**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잘 나이 들기(Aging Well)’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내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TV 건강프로그램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화를 그려내고 있으며, 노화 과정을 재현하는 방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 <비타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타민>은 정보의 오락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화된 몸을 희화화시켜 조소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노화방지를 하지 못한 출연자가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보여주어 노화에 대한 공포심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화된 몸을 수명이 다한 기계로 의미화 하고 측정 가능한 노화 지수를 만들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노년은 의료전문가와 의료 기술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노화를 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노화의 의료화’ 담론은 의료전문가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사회문제를 개인화시키는 결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주제어: 건강프로그램, 텍스트 분석, 노화의 의료화

1. 문제제기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¹⁾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나 의료보험 기금 고갈 등과 같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개인 차원에서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데, 고령사회는 개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비해 노인으로서 더 오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수는 인류 모두의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바라던 소망이 이뤄진 것인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어진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잘 나이 들기(Aging Well)’에 대한 요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잘 나이 드는 것(Aging Well)’에 대한 논의는 특히 의료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우와 칸(Rowe & Kahn)을 비롯한 노년 학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건강’임을 밝히고 있다. 노년은 특히 의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전 생애의 시기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경험할 생애의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또한 당대의 노년이 앓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앓을 수 있는 질병이 만성병이라는 사실도 의료의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jumi710@naver.com), 주저자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hancon@pknu.ac.kr), 교신저자

1)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노년에 대한 영향력을 가능하게 한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매 등 말 그대로 확실한 완치 없이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하는 만성병을 통해서 노년은 의료적 관리를 받아야할 삶의 시기로 재해석된다(김태우, 2012, p.7). 이러한 인식은 노화 과정의 비의료적인 문제까지 의료적인 문제, 즉 질병으로 정의되고 다뤄지는 과정인 이른바 ‘의료화(medicalization)’로 이해될 수 있다(Conard, 1992, p.209). 노화의 의료화는 과거에는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노화나 죽음과 같이 우리 삶의 자연스럽게 불가피한 영역까지 질병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생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료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인들이 쉽게 접하는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말이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노화의 의료화, 질병화를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노화를 늦추거나 관리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게 되자, 항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행위를 실천하려는 수용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가한 건강/의학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 2010년을 전후하여, 노화를 주제로 한 방송 내용들을 활발히 생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들이 노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전체 수용자들 중에서도 노년층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중 건강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건강에 관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유경, 1996; 이현정·박재용, 2011; 최윤희, 1990). 텔레비전을 통해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의식을 깨우쳐 건강행위를 유도하는 것이(이현정·박재용, 2010, p.300)이라고 봤을 때, 건강프로그램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수용자층이 바로 노년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되는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들은 노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건강프로그램들의 주 시청층이 노년층임을 고려한다면, 노화에 대한 다양하고 대안적인 담론을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적 체험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디어 속에서 노화나 노년층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 속 노년층에 관한 논의는 드라마나 광고, 신문 기사 분석에 편향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더해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노년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거나 다른 세대가 미디어 속 노년을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는지와 같이 단편적 분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의학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건강/의학 프로그램에서 노년층 관련 담론을 어떻게 구성해내고 있는지를 다룬 연구는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이슈를 믿을만한 정보원과 함께 다룸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더 신뢰할만한 정보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김미혜·유경, 1996; 이현정·박재용, 2011; 최윤희, 1990),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프로그램에서 구성된 노화에 관한 담론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 수용자들이 ‘노화’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TV와 언론에서 앞 다투어 다루는 건강/의학 관련 프로그램과 뉴스들은 우리를 의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게 한다. 오늘날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은 노화 관련 담론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미디어의 노화 관련 담론은, 그것이 당연시 되는 주류 담론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노화의 의료화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나타나

는 노화를 개념화하는 데 중요하고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가 은유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Lupton, 2003/2009, p.94). 미디어가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한 은유를 통해 우리는 질병화된 노화를 인식하고 타인의 주관적인 노화에 대한 경험을 의미화 하여 현실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의료화된 노화에 대한 미디어 텍스트 속 표현들의 의미작용을 밝히는 작업이 그 사회가 노화를 경험하고 내재화하는 특정 방식을 짐작하게 하는 실마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 어떠한 은유를 통해 노화를 의료화/질병화 시키는 가라는 질문과 미디어가 노화가 진행된 몸을 재현하고 구성하는 방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타민>이라는 건강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노화가 진행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노화의 조건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구성되는지 그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노화’의 의미 변화와 의료화된 노화

현재 우리 사회는 앞 다투어 젊음을 추구하고, 노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 중 부정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있어 나이 듦에 대해 그리고 노년기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노화나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거나 차별을 의미하는 연령차별주의(Ageism)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이 고정되어 있지만 노인차별은 누구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해 보인다.

그렇다면 ‘나이 드는 것(Ageing)’의 의미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일까? 노년에 대한 이상과 전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의 노년의 오랜 역사를 개관해보면, 늙음과 노년의 의미가 역사상 결코 일면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일반화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Minois, 1987/2010; Thane, 2005/2012). 예를 들어, 근대화 이전 유럽 전통 사회에서 노인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기보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노화의 의미는, 노인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무능하다고 낙인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이 계속 와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Kuypers & Bengtson, 1973).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문영(2000)은 노화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담론을 질병, 성적 불능, 외관상 추함, 지적 능력의 감퇴, 노망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노화 담론은 일부 노인의 특성을 전체로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모습으로 이해하거나 노인의 다양성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를 터부시하고 노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양산하는 현재의 지배적

노화 담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생의학적 패러다임(biomedical paradigm)에 준거해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Estes & Binney, 1989; Kaufman, 1994). 생의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양분하는데, 노화 역시 ‘신체 기능의 쇠퇴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류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여 임상적 연구대상이자 의학적 치료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노화의 의료화(medicalization)’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화(medicalization)란 비의료적인 문제까지 의료적인 문제 즉 질병으로 정의되고 다루어지는 과정을 일컫는다(Conard, 1992, p.209). 즉, 의료화는 그동안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출생이나 노화, 죽음과 같이 우리 삶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영역까지 질병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삶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료에 의존하여 해결하게 하였다. 특히, 현대의학과 노년에 대한 논의는 의료화의 개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근된다. 구체적 예시로 한혜경(2012)은 노화 자체를 의료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의료산업에서 구성하는 성공적 노년상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거나 신체의 노화 현상을 감추게 하는 안티 에이징(anti-aging) 된 인물로 표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공적 노화 담론을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웰 에이징(well-aging)’이 아니라 나이 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안티 에이징(anti-aging)’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한다. 이렇듯 현대의학의 영향력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이제 노화의 의미 규정에까지 개입하는 당대의 영향력 있는 담론 생성자가 된 것이다.

노화를 바라보는 현재의 담론에 영향을 끼친 현대의학은, 푸코(Foucault, 1963/2006)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근대 서양의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각인된 의학적 시선을 통해서 질병을 바라보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근대의 의학적 시선은 분류하기라는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는데, 광인과 정상인, 범죄자와 일반인, 질병이 있는 몸과 질병 없는 몸을 구분 짓는 구획을 당연시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화 역시 현대의학의 구획 짓기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화/질병화 된 노화는 비정상적으로 분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현대의학이 질병화 된 노년의 몸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료화 된 노화를 어떻게 의미 짓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수잔 손탁(Susan Sontag, 1977/2002)의 관점에 기대어 노화에 나타나는 질병의 은유들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은유(metaphor)란,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표현으로,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존재하는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과정이 은유적이며 인간의 개념 체계는 은유적으로 구조되고 정의된다(Lakoff & Johnson, 1980, p.5). 다시 말해 은유는 언어의 문제이기보다는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의료전문가나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경험이나 관련 지식을 타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의학 및 건강 정보를 종종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은유는 질병의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신체적 감각을 더 상세히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van der Geest & Whyte, 1989, p.354). 그런데 손탁(Sontag)은 이러한 은유가 편집증적인 사회와 얽히면서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유로 쓰이는 질병 자체가 질병에 둘러붙어 환자의 재활의지를 꺾는 낙인이자, 은유, 이미지가 되면서 삶과 죽음을 제대로 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프다’ ‘비정상적이다’라는 질병의 은유는 그렇게 보편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편향된 선입관의 산물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의료화된 노화를 규정하고 은유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현대의학이 정상의 몸과, 질병화되어 의료의 처치가 필요한 노년의 몸을 구분하기 위해 어떠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몸과 노화를 방지하거나 연착시킨 몸을 구분 짓는 기제를 밝히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노화 관련 의료 담론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조망하고자 한다.

2) 미디어의 노화 담론

노년학자인 로우와 칸(Rowe & Kahn, 1999)은 노화에 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미디어가 상당 부분 재현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정관념은 늙으면 병이 들고, 노인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으며, 성공적으로 늙으려면 유전자를 타고 나아가고, 노화되면 육체적·정신적·성적 능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노인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디어가 이러한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다보면 ‘노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신념에도 영향을 끼치며, 이로써 미디어는 노화에 대한 사회적 신념을 틀 짓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의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노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가 구성원으로서 노인과 그들의 노화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해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미디어가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조망은, 우리 사회가 ‘노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논하기 위한 의미 있는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과거 미디어 속 노년층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부정적이었다. 미디어가 노년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미디어에서 실제 노인이 얼마나 자주 다루어지는지 그 등장 빈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노년층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서 등장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연령층이다(김미애, 1998; 이병관 외, 2003; Weinmann, 2000). 다른 세대에 비해 노년층이 미디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한혜경(2012)은, 비주얼 이미지(visual image)가 강조되는 다양한 영상 미디어들의 발달과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소비계층의 특성 등이 맞물려, 미디어 세계는 젊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므로 대다수의 미디어 속 노년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과거 미디어가 노년을 다뤘은 방식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은 ‘정형화’라는 하나의 단어로 축약될 수 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노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서구의 인쇄 광고와 TV 광고에서는 노인을 젊은이들에 비해 무력하고 불완전하고 나약하며 게으르거나 혹은 무식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다(Peterson, 1995; Peterson & Ross, 1997).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노인은 뻔뻔스럽고 건강하지 못하며 재미없게 묘사되는 등 부정적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났다(김상훈·최환진, 1997, p.37). 이처럼 미디어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젊음을 숭배하고 늙음을 탄식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페리(Perry, 1999)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분석하여 늙은 마녀들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생산해내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아동용 영화가 ‘노년공포증(gerontophobia)’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모든 노년층을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디어는 과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인 연령차별주의(Ageism) 담론을 지배적으로 생산해 왔다. 최근 논의인 이경숙(2011)의 글에서 노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정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디어에서 노년층은 여전히 주변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노인 담론이 대체로 의존자, 피보호자, 무능력자, 병약자로 정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노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담론 또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속 연령차별주의(Ageism)에 대항하는 담론으로 신노년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노년 담론은 현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노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욕구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노인들을 옹호하기 위해 주장되었다(정진웅, 2006; 한경혜·윤성은, 2007). 즉 신노년 담론의 등장은 노화과정과 노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진웅(2006)은 신노년 담론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근래 제작된 텔레비전 광고라고 말한다. 최근 광고들이 기존의 부정적인 노년의 이미지들을 대신해 ‘연장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쾌활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노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노년층의 모습은 노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에서 재현하기 시작한 ‘신노년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미디어의 신노년 담론이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가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의 신노년 담론은 개인의 노력과 책임만을 강조하여 국가의 복지 방안 등 사회구조적 책임까지 개인에게 떠안기고 있어, 미디어에서 대안적 담론으로 여겨지던 신노년 담론 역시 그 의미구성 방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정경희 외, 2006; 한경혜, 2000).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노화 담론을 구성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주요 미디어 중 하나인 텔레비전에서 노화의 의미를 구성해 내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3) 노년층과 TV 건강프로그램

노인들은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시청량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s & Lawton, 1982; Williams & Nussbaum, 2001) 윌리엄스와 너스바움(Williams & Nussbaum, 2001)은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주요 요인을 밝혔는데, 노년기가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뉴스와 공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인은 연령과 성별, 수입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과 질병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영향력 있는 정보원으로 텔레비전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최윤희, 1990, p.15).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정보원 중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건강정보원은 매스미디어이며,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혜·유경, 1996; 최윤희, 1990). 최윤희(1990)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수용자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취하거나 어떤 집단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특정행태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예방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밝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미혜와 유경(1996)은 노인들이 건강정보를 전달받는 매스미디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텔레비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텔레비전이 다른 매체와는 달리 바로 보고 듣는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현정과 박재용(2011)은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시청행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의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시청빈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시청률은 건강프로그램 내의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은 노년층이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젊음을 추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들 중에서 부정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있어서 나이 들에 대해 그리고 노년기 삶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은 분위기이다. 실제 노화현상과 관련되어 야기될 수 있는 걱정으로 생긴 불안 상태를 ‘노화불안’이라고 한다(김신미·김순이, 2009, p.207). 와킨스와 페로니(Watkins, Coates & Ferroni, 1998)에 따르면 노화불안이란, 노화와 불안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자신의 개별적 노화 과정과 관련된 두려움과 과정으로서가 아닌 상태로서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적당한 노화불안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노화를 거부함으로써 은퇴 후의 삶 또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노화불안은 다른 세대가 지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에서 노화 담론을 부정적으로 구성해낸다면, 젊은 세대로 하여금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인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노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노화 담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최근 우리나라 방송환경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건강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맞춘 다양한 건강/의학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 방송사들은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교양 프로그램과 의학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건강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들은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주요 목표임을 기획의도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KBS에서 방송되는 <비타민>이다.²⁾

KBS 2TV에서 방송되는 <비타민>은 지난 2003년 6월 29일 첫 방송된 이래, 2005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에서 최우수 TV 오락 프로그램상을 받는 등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에 의하면, 2012년 4월 한 달 간 주간 시청률이 상위 25위권을 항상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³⁾ 지난 9년 동안 비드라마 프로그램으로는 높은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타민>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동시에 건강행위에 대한 실천의도를 높여주고 있어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라는 새로운 방송 장르로 분류되기도 한다.⁴⁾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수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고령사회에서 건강 프로그램들이 노화 담론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 <비타민>의 방송내용 중 ‘장수’, ‘회춘’, ‘노화방지’, ‘항노화’ 등 노화를 직접적인 방송 주제로 선정한 에피소드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비타민>은 2003년부터 6월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포맷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부터이다. 그 전에는 한 회 방송에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밥상’ 등 여러 코너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코너에 서로 상이한 주제의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7월 이후, 한 회 방송에서 전달하는 건강 정보의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 통일하는 포맷을 선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방송분 중 한 가지 주제의 건강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2011년 7월 이후 방송에 주목하였고, 2012년 6월까지 지난 1년 여간 방송된 에피소드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의 방송을 선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에피소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건강프로그램의 분석대상 에피소드

KBS 2TV '비타민'	2012년 5월 23일	100세 시대를 위한 몸테크-제 2탄 중년 치아 건강의 모든 것
	2012년 5월 16일	100세 시대를 위한 몸테크 제 1탄 나잇살 빼는 법
	2012년 3월 21일	제2의 인생, 회춘성형
	2012년 2월 22일	대한민국 100세 시대-회춘
	2012년 1월 4일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2011년 11월 16일	대한민국 100세 시대-3탄.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
	2011년 11월 9일	대한민국 100세 시대-2탄. 암의 경고
	2011년 11월 2일	대한민국 100세 시대-1탄. 장수의 비밀

2) MBC에서 방송되던 건강 프로그램 <닥터스>는 2006년 11월 첫 방송을 시작했으나 지난 2009년 11월에 종료되었고, SBS에서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방송되는 건강 프로그램 <백세 건강스페셜>은 2012년 4월 평균 시청률이 2%이고, KNN을 비롯한 지역민방들은 동시간대에 자체방송을 송출하고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비타민>의 2012년 4월 한 달 간 전국 평균 시청률은 11.2%이다. KBS 자료 제공.

4)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을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인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는 공통적으로 유익과 재미라는 제작 요소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방송의 교양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상근, 2011, p.252).

2)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미디어 담론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벨과 개럿(Bell & Garret, 1998/2004)의 정의에 의하면,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은 미디어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분석⁵⁾을 포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노화의 의료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미를 지닌 텍스트(text as meaning)이라 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과 함께, 텍스트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반응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차적 작업으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간 노화가 어떤 모습으로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지 텍스트 분석에만 주목하였다.

알렌(Allen, 1987/1992)에 따르면 텔레비전 텍스트는 문화적·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기호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드(code)’⁶⁾를 통해 의미를 생산한다. 알렌(Allen, 1987/1992)은 드라마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 텍스트에 내재해있는 코드의 유형을 장르 코드, 문체 코드, 개별 텍스트의 코드, 상호텍스트적 코드, 이데올로기적 코드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개념화 한 주창윤(1999)은 장르 코드를 산업, 저자 혹은 제작자, 수용자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코드라고 정의하였고, 상호텍스트적 코드는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관련되는 코드, 문체 코드는 특정 장르의 텍스트가 다양하게 묘사되는 방식과 관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별 텍스트 코드는 장르와 문체코드에 존재하지만 자기 특징적인 서사구조와 등장인물 유형 그리고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코드는 사회적 합의된 규범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창윤(1999)은 알렌(Allen, 1987/1992)의 분석틀을 토크 프로그램에 응용하여 장르 코드, 텍스트 코드, 이데올로기적 코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장르 코드, 개별 텍스트의 코드, 이데올로기적 코드 위주로 분석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TV 건강프로그램인 <비타민>이 가지는 장르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TV 건강프로그램인 <비타민>의 개별 텍스트에서 노화를 구성해내는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TV 건강프로그램인 <비타민>이 ‘노화의 의료화’를 의미화 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넷째, TV 건강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의료화 담론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는가?

5) 수용자 분석은 의미가 텍스트와 그 독자들(시청자, 청취자들...) 사이에서 협상되며, 미디어의 독자가 다원적이기 때문에 해독도 마찬가지로 다원적이고 따라서 텍스트 결정주의의 가정은 거부된다(Bell & Garret, 1998/2004, p.280)

6) 크리스 바커(Chris Barker, 2004/2009)에 의하면, 문화연구 안에서 ‘코드’는 기호와 그 의미가 문화적 관습에 의해 배열되고, 의미가 안정화되고 자연화되는 정도까지 습관화되는 재현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기호학과 그 뒤를 이어 문화연구는 모든 문화적 대상물은 의미를 전달하고 모든 문화적 실천은 기호에 의해 생성된 의미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해 ‘코드’라는 개념은 모든 방식의 문화적 실천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고 본다.

4.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 결과

1) 향노화 ‘정보’와 노화된 몸을 통한 ‘오락성’의 결합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가 공급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한 건강정보 전달에서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오락성의 활용이다. 많은 건강정보들이 드라마 또는 버라이어티쇼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같이 오락성을 활용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은 ‘인포테인먼트’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김상근, 2007; 이기현·이동훈, 2005; 주창윤, 2004). 특히 건강 관련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건강정보의 중요한 출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타민>이다.

인포테인먼트 장르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비타민>에서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점은 어떻게 건강 정보를 오락화하여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타민>은 매주 한 가지 질병을 주제로 선정, 주요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확보하고, 주화자인 출연자들이 만든 상황과 연행을 통해 희극적 캐릭터를 구축함으로써 오락성을 확보한다. ‘노화’ 관련 주제의 방송도 이러한 전형성을 따르고 있는데, 의료전문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신체 장기별 노화 과정 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화하여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정보의 이해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재미의 요소를 넣기 위해 김보화, 전원주, 선우용녀 등 개그맨이나 코믹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있다. 또한 진행을 맡고 있는 정은아, 김용만, 전현무 중 정은아는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김용만과 전현무는 출연자들과 함께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에서 재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타민>의 노화 관련 에피소드에서 희극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해당 주제에 대해 토크를 하면서 출연자들이 노화된 몸 때문에 겪는 사례들을 우스꽝스럽게 말하거나, 퀴즈 쇼 형식에서 출연자가 알고 있는 노화 관련 지식이 의료전문가로부터 잘못된 지식임이 밝혀져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될 때이다. 그리고 게임 쇼 형식에서는 ‘누가 더 나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리는 과정에서 신체의 젊음에 자신감을 가졌던 출연자가 마지막에 가장 노화된 출연자로 선정되는 반전의 순간, 의외성에 의해 웃음이 발생한다. 일례로 ‘회춘성형’편에서는 두 남성 진행자의 얼굴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 노년이 된 이들의 모습에 대해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처지는 피부와 커지는 얼굴”이라며 웃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각 상황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주요 장치는 출연자들의 몸과 질병 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 노화 관련 에피소드에서는 출연자 중 가장 노화된 몸을 지니고 있거나, 평소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를 하지 않는 인물들이 게으르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정형화 되고, 이러한 캐릭터의 특성이 강조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는 강화된다. 예를 들어, 진행자와 의료전문가들은 노화된 몸을 지닌 출연자들에게 “병을 키우고 있다”, “큰일 났다”는 식의 평가를 하며 조소를 보내는 모습과 해당 출연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의 과장된 웃음과 박수소리는 노화의 증거를 포착한 출연자가 웃음의 소재가 되는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유머에 소구하는 오락적 장르로서 <비타민>의 특성은 노화에 의한 질병, 그리고 노화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징후들이 웃음을 유발하는 존재로 대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내에서 대상화된 노화 현상은 다른 대상들과 대비되어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오락성을 생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인물들의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방식, 노화된 신체 부위를 과감히 영상을 통해 노출하여 젊은 사람들, 혹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동원된다. 이로써 <비타민>은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부조화 등을 강조하여 노화된 몸을 조소의 대상으로 의미화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출연자들 중 웃음을 유발하는 인물들은 노화가 진행되는 자신의 몸을 방치했으면서도 늙거나 죽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망을 보여주어 부정적 이미지로 재현된다. 이들은 정당한 노력 없이 젊음이라는 대가를 바라는 탐욕스러운 존재이며, 자연의 순리에 자신의 신체 변화를 맡겨 놓는 게으름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로써 <비타민>은 노화 현상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결합 있는 인물로 명명(labeling)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2) 노화 공포를 극대화하는 텍스트 내 배치 전략

<비타민>은 매주 건강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예인 패널들과 의료전문가가 함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주요 포맷으로 한다. 이때 한 주의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제는 ‘치아건강’, ‘회춘성형’, ‘치매’, ‘나잇살 빼는 법’과 같이 노화 관련 질병들을 피부, 근육, 눈, 관절 등 신체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매주 다른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등장해 각각의 질병들을 관리,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함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몸이 마치 하나하나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노년의 얼굴과 몸의 특정 부위에서 노화의 징후(sign)들을 제거해야 하며, 신체의 어느 한 부위만 노화가 진행되어도 노년기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비타민>은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시청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연예인 패널들을 출연시킨다. 연예인들은 특정 부위의 노화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건강 상식이 올바른지 의료전문가들에게 퀴즈를 통해 평가받고, 나아가 의료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신체 각 부위가 어느 정도 노화되어 있는지, 더 이상의 노화를 막거나 예방할 방안은 무엇인지 조언을 듣는다. 노화에 관련된 주제들이 방송된 <비타민>의 에피소드들을 정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일관된 이야기 흐름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2> <비타민>의 서사구조

단계	주요 내용	주 제
기	- MC가 주제어 제시, 영상으로 주제 설명 - 스튜디오 출연한 전문가, 연예인 소개	신체의 특정 기관의 노화현상이 질병인 이유 소개
승	- 노화 관련 주제에 대한 출연자 토크, 자료화면으로 실제 사례자 소개 - ‘명의의 x-파일’에서 출연의사가 퀴즈를 출제해 구체적 건강정보의 전달	노화로 인한 질병의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강조
전	- 병원을 찾은 출연자들의 검진 과정 - ‘위험한 랭킹’ 1위와 7위를 제외한 순위 발표 - 건강 신호등 앞에 1위와 7위 후보자 세우기	연예인들을 예시로 노화로 인한 건강 위험도 측정
결	- ‘위험한 랭킹’중 건강인물, 위험인물 발표 - 전문가의 소견, 출연자의 소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화 관리 방안 제시

이러한 서사구조는 건강정보의 심층성과 구체성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서사를 이끄는 토대가 되는 것은 ‘경쟁’이다. <비타민>은 프로그램 초반에는 의료전문가가 내는 퀴즈를 과연 출연자들이 맞힐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의료전문가 대 출연자가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며, 후반에는 ‘누가 더 노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출연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을 기본 서사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연하는 인물들은 노화 정도를 두고 끝없이 경쟁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노화의 징후들을 감출 것을 권유받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에 적합한 이상적 노년상이 젊음을 연장시켜 늙어 보이지 않는 인물임을 강조한다.

<비타민>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등장인물 중 의료전문가의 역할이다. <비타민> 속 의사들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명의의 x-파일>이란 코너에서는 직접 퀴즈를 출제하는 등 연예인들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해주고 앞으로 건강행위 실천 방향을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의료장비와 기술, 수술법 등 의료신기술들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비타민>에서는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한 백내장 수술,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관절염 수술 그리고 이른바 회춘성형으로 불리는 안면거상술 등의 수술 과정과 수술 장비 등을 주요 정보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비타민>은 정형화 된 서사구조를 통해 일상 속의 노화 관련 정보들을 의학적 시선으로 재구성, 재평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의사들로부터 의학적 진단과 점검을 통해 노화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하는데, 중간에 주제에 대한 설명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된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영상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비타민>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상이 제시하는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화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가 의료 기술 후 건강을 되찾게 된 사례자들의 모습이고 둘째는 연예인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 모습이다. 먼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례자들이 과거 노화 관련 질환으로 겪었던 고생담을 재연하거나 당시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보여주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강조한다. 이때 노화가 진행된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익스트림 클로즈업⁷⁾으로 보여주고, 의료적

7)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 close-up)은 얼굴이 전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눈이나 귀 등만이 나올 정도로 클로즈업보다 더 피사체를 크게 촬영하는 샷이다. 이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프레이밍으로 관객의

치료를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대비시킴으로써 노화 관리를 받지 않았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더해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노환으로 생각하고 방치”, “심할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등으로 신체의 노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노화는 단편적인 신체 기능의 손상과 감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로 점차 확대되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비타민>에서 구성하는 두 번째 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위험한 랭킹’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연예인들이 사전에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신체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검사들을 화면분할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생체나이를 통해 노화 정도를 진단한다는 목적으로 체형연령 검사, 폐 연령검사, 생화학·호르몬 연령 검사 등을 시행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어, 노화 진단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검사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때 연예인들은 검사를 받기 전 “불안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인터뷰나 검사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카메라의 위치다. 카메라는 연예인들의 눈높이보다 위에서 이들을 따라다닌다. 이러한 부감촬영(high angle)은 피사체가 왜소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에 처했거나 권력이 없는 인물을 표현할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즉, 검사에 임하는 연예인들이 노화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앞에서 힘이 없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비타민>의 텍스트 특성 중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세트와 조명의 사용이다. 토크쇼나 퀴즈쇼 형식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세트와 조명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출연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여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비타민>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으로 꾸며진 세트와 안정감 있는 조명 연출로 딱딱하지 않은 건강정보쇼라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출연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크를 이어가도록 의자에 앉은 채 진행을 한다. 이때, 무대 중앙에 서있는 진행자들을 기준으로 패널석과 의료전문가석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연예인 대 전문가의 구도를 만들어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차별화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송 후반 ‘위험한 랭킹’ 코너를 시작하면 세트에 변화가 생긴다. ‘위험한 랭킹’ 코너는 연예인들이 사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각 신체 기관의 노화 정도를 순위별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1위와 7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무대 중심에 이른바 ‘건강 신호등’이 세워지고 연예인 출연자 중 두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고 나서야, 가장 노화 관리를 잘 한 사람이 ‘건강인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위험인물’로 호명된다. 이 코너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이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미괄식 구성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트는 초록색과 빨간색을 사용하여 두 출연자를 격리시키고, 마지막 발표의 순간까지 조명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출연자들을 혼란스럽게 비춘다.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각적 효과에 의해 출연자들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불안감이 조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출연자 뒤에 배치된 건강 신호등에 초록색 또는 빨간색 불이 켜지며 출연자들의 건강상태를 색으로 규정해준다.

시선을 가장 심하게 통제하는 프레이밍이다(곽한주 외, 2009, p.91).

8) 영상의 촬영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서술은 곽한주 외(2009)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표 3> <비타민>에 나타나는 노화 관련 은유

	노화된 몸	노화 예방을 잘한 몸
언어의 은유	위험인물	건강인물
색의 은유	빨간색	초록색
영상의 은유	수치심, 놀림	환호, 박수

이러한 영상과 세트, 조명의 배치 전략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은유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용자들에게 노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자막에 의한 건강인물 대 위험인물이라는 언어의 은유, 초록색 대 빨간색이라는 색의 은유, 출연자들의 환호 대 실망한 표정을 담은 클로즈업샷의 대비에 의한 영상의 은유 등은 노화 관리를 하지 못한 사람을 마땅히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인물로 재현하고, 노화가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무지함의 표상으로 의미화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비타민>은 노화 관리에 실패할 경우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후 자신의 꾸준한 노력과 의료의 통제가 더해진다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서사구조로 역설하고 있다. 영상은 노화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례지들과 시청자의 대리인으로 설정된 연예인들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대비시키기 위해 클로즈업샷이나 부감촬영 등과 같은 촬영기법을 활용한다. 이에 더해 세트의 배치나 조명의 사용은 권위를 가진 의료전문가에게 ‘위험인물’로 호명되고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보여주어 노화에 대한 공포심을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3) 수명 다한 기계로서 노화된 몸의 의미화

건강프로그램에서 노년의 의료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본 논문은 보다 심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노년의 정상과 비정상을 어떤 기준으로 구획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먼저, 이들이 정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강한 노년상은 젊은 몸을 지니고 있으며, 질병이 없는 상태인데 이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적극적인 의료 처치로 이룰 수 있다. 결국, <비타민>에서 주장하고 있는 ‘잘 나이 드는 것(Aging Well)’이란 젊음을 연장하거나 젊음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비타민>에서 건강한 노년의 표상으로 제시되는 사례지들은 인터뷰나 현재의 모습을 통해 신체 특정 부위의 노화가 멈춰지자 마음의 젊음까지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회춘성형’ 편에서 소개되는 사례지들은 각각 노화의 상징인 검버섯 제거술과 눈매 교정술,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은 후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며 “삶이 달라져” 노후의 삶이 행복해졌다고 언술하였다. 이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막는 치료 또는 수술 행위가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노년의 삶 자체를 젊은 시절과 똑같이 독립적이며 생산적으로 유지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반면에 스튜디오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건강한 노년인 사례지들과 대비되어 제시된다. 특히 연예인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현재의 얼굴과 나란히 배치하여, 젊은 시절에 비해 얼마나 노화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비타민>은 만약 신체의 각 노화 과정을 미리 예방하지 않는 개인이라면 각종 질환이 찾아올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노화가 진행된 노년들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주변화 시키고 있다.

이렇듯 <비타민>에서 노화된 몸은 ‘정상’인 몸에 대비되는 ‘비정상’의 몸이고 질병화(pathologization)

된 몸이며,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혹은 최대한 연착시켜야 할 생애의 시기로 의미화 된다. 그런데 노년의 몸을 정상/젊음/건강과 비정상/늙음/건강하지 못함으로 나누는 이항대립적 구조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건강’이 진화 과정에서 일시적 적응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김중갑 외, 2009, p.79). 이는 우리의 몸이 건강과 질병, 젊음과 늙음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단절되거나 구획되지 않으며, 더욱이 건강과 질병은 서로가 대비된다기보다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애주기에서 질병은 젊을 때에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으며, 나아가 노화는 비정상적이거나 놀라움을 일으키는 특별한 현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통합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표 4> <비타민>에 등장하는 노년의 이항대립구조

건강한 노년	건강하지 못한 노년
정상	비정상
젊음	늙음
객관적 진단	주관적 판단
의료적 치료	의료적 방지
자립적	의존적
행복	불행

하지만 <비타민>은 노화된 몸을 수명이 다한 기계로 은유화 하여,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기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각 신체 기관들이 노화되면 노년의 전체 삶이 불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로써 노화의 의료화 담론은 의료 앞에 나약한 존재로 규정되는 노년을 탄생시킨다. 노년이 자기 몸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 표현보다 병원에서 첨단 장비에 의한 생체나이 측정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노년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 기계로서 노화된 몸의 수명을 측정하는 주요 기계는 표준화와 수치화이다.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파머(Farmer, 2004/2009)가 “개개인의 개별적인 고통을 객관화하는 건조한 사실이나 묘사, 숫자 등으로는 그러한 고통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실제 현대의학은 신체 각 기관의 건강 정도와 질병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평균에 의해 정해진 상수에서 온 기준을 제시한다. 실제 <비타민>에서는 출연자들의 각 신체 기관들의 기능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감진하여 피부나이, 뼈 나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생체나이를 측정하여 노화 정도를 진단하고 의료전문가가 예상수명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건강지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화된 몸을 수명이 다한 기계로 의미화 하는 노화의 의료화는 건강의 문제를 평균화, 계량화하여 각 신체 부위의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노화는 단순히 신체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관계와 자아상,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건강프로그램인 <비타민>은 노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 한계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측면만을 의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노년이라는 존재가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인문학적 측면들을 도외시키고 있다. 결국 <비타민>에서 재구성하는 노화 담론은 개인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을 ‘제거’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 존재로 대상화하고, 이러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영향력 있는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TV 건강프로그램의 ‘노화의 의료화’ 담론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

지금까지 본 논문은 건강프로그램에서 노년의 의료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보다 심층적으로 노화의 의료화 담론이 작동하는 기제를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 몸의 문제를 그것을 지배하는 권력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하여 고찰한 푸코(Foucault)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사회는 개인의 건강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의 정치학을 통해 주체를 관리·통제하는 통치체제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육체와 사회체제 전체의 건강과 질병을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나아가 질병을 가진 자는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의미화 되었다(Gordon, 1991, pp.205~216). 이때 중요한 것은 권력의 작동기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권력은 ‘의학적 시선’이다. ‘의학적 시선’은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 처럼 투시하여 분류하고 규범화하여 그 작동기제를 합리화한다. 환자는 의료기관의 규율에 복종할 때만, 다시 말해 규범화된 환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보를 지식으로 제공할 때만 환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Foucault, 1963/2006). 이러한 관점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신체 장기별로 노화 과정을 추적하는 갖가지 검사의 현장 역시, 노화된 몸이 의학화 되고 정치화 되는 현장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프로그램은 앞장서서 의료적 검사와 기술을 권장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 과정까지 의학에 의해서 식민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재현하는 노화의 모습은 이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조기검진과 기술을 받지 않았다는 게으름의 상징이고, 돈과 시간에 의해 젊음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노화는 또한 가난의 은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화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의료화 담론은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전문가의 통제권’과 ‘사회문제의 개인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의료직은 질병으로 개념화된 어떤 것에도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화’가 의료화 되면 의료적 전문용어로 정의되어 일반 사람이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의료인들만이 다룰 수 있는 배타적인 영역이 되어 버린다. 또한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사회체제에서 보다는 그러한 문제의 피해자인 개인에게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학적 시선에서는 노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노화를 둘러싸고 사회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Conard, 1992). 결국, 노화과정을 표준화된 의학적 시선이나 특정 질병의 일반화된 특성에 맞추는 순간, 개별화되고 다양성을 가진 노화의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노화의 의료화 담론이 의료의 과잉이라 할 만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의학적 이상의 범주를 확장시켜 질병이 아닌 것을 질병으로 만들어 관련 산업의 이윤을 확장시키는 것은 현대 의료 관련 산업들의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학연구의 상당 부분은 치명적 질병 예방이나 필수 의약품 생산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컨대 노화방지 의약품이나 우울증 치료제, 호르몬 조절제, 다이어트 약품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의약품들이 모여 거대한 제약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허민호, 2012, p.288). 우리는 여기서 의료서비스가 환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서 소비자로의 변형은 우선 의료 서비스가 상품이라는 것,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한다는

경제적 합리성이 의료 영역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구매력의 유무에 따라 분절됨(허민호, 2012, p.290)을 의미한다. 비환자라 하더라도 구매 능력이 있다면 이들은 잠재적 환자(pre-patients)가 되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따라서 노화의 의료화 담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 환자(pre-patients)’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미래의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노년에 대해, 그리고 노화과정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노년을 소외시키고 있다. 노화 자체를 비정상으로 의미 짓고 터부시여기는 의료화 담론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였던 노화의 의미를 획일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TV 건강프로그램은 건강한 몸을 위해 끝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의료산업의 상업적 논리와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대상화한 노년의 몸을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구매하며 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전문직의 영향력이 확대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학적 치료(treatment)가 노화 과정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 그 중에서도 건강/의학 지식들을 다루며 미디어의 건강 관련 담론들을 주도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건강프로그램들이 질병화 된 노년의 몸을 규정하고 의미화 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건강프로그램에서 구성된 노화에 관한 담론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 수용자들이 ‘노화’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들은 특정 질병이나 건강 이슈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인 데이터,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와 결합시켜 객관적인 분위기에서 전달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건강 관련 담론들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건강프로그램이 구성하는 ‘노화의 의료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프로그램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는 KBS의 <비타민>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비타민>은 건강정보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토크쇼와 퀴즈쇼, 게임쇼 등 여러 장르의 형식이 혼합된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프로그램으로서 ‘정보의 오락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는 오락적 요소는 연예인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의 희극적 캐릭터를 활용한 유머인데, 이 과정에서 노화된 몸이 웃음의 소재가 되어 조소의 대상이 되고, 노화 과정이 부정적으로 재현된다.

둘째, <비타민>의 개별 텍스트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면, 이야기 흐름은 노화 관리에 실패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신의 관리와 의료의 통제가 더해진다면 노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영상에서는 노화의 징후(sign)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클로즈업이나 시청자의 대리인으로 설정된 연예인들이 노화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한 부감촬영이 특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세트의 배치나 조명은 권위를 가진 의료전문가가 가장 노화된 출연자를

‘위험인물’로 호명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긴장감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노화된 몸이 언어적 은유로는 위험인물, 시각적 은유로는 빨간색, 영상적 은유로는 놀림과 수치심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화의 증상을 방치한 노년을 실패자로 낙인찍으며, 노화 과정이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전조로 의미화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비타민>이 노화의 의료화를 의미화 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비타민>에서는 젊은 몸은 ‘정상’, 노화된 몸은 ‘비정상’이라는 선긋기가 이뤄지며, 노화된 몸은 질병화(pathologization)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그리고 최대한 연착시켜야 할 생애의 시기로 규정된다. 또한 노화된 몸을 수명이 다한 기계로 재현해냄으로써 낡은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복원시키듯이, 노년의 몸도 피부, 근육, 눈, 관절 등 신체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질병들의 치료법이 따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기계로서 노화된 몸의 수명을 측정하는 주요 기제는 계량화와 표준화이다. 이처럼 <비타민>은 노화된 몸을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대상화시킴으로써 노화 과정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인문학적 맥락(context)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TV 건강프로그램에서 구성하는 의료화 된 노화 담론은 노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감시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한 의료전문가적 근거와 기술들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노화담론은 사회적이고 정신적 문제까지 다뤄야 하는 개인의 노화과정을 단순히 의료화, 질병화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이자 의료적 치료의 문제로만 치환하는 담론의 효과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강과 노화를 주요 주제로 다루는 건강프로그램들은 ‘잘 나이 들기(Aging Well)’에 대한 기준과 의미화 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나이 들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신체적 노화, 인지적 노화처럼 인생후반기에 나타나는 ‘감퇴’뿐 아니라 이 시기에 함께 나타나는 ‘성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흑백논리를 넘어서선 모순과 갈등을 수용하는 지혜가 형성되기도 하고, 삶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디어는 노화와 노년층을 재현함에 있어 노인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노화의 질을 논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획일적 시선으로 성공적 노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이 어떠한 노년기를 영위하는 것이 더 행복한지 다양성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곽한주·방혜진·윤성은·한창호(2009). 『영상의 이해: 영화와 TV의 미학적, 사회학적 접근』. 서울: DIMA.
 김문영(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제9권 4호, pp. 515-523.
 김미애(1998). 『광고의 노년층 묘사에 관한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혜·유경(1996). 노인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 『한국노년학』, 제16권 1호, pp.1-17.
 김상근(2007). TV 오락프로그램의 오락성 요인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제15권, pp.57-75 .

- 김상훈·최환진(1997). 광고의 노인묘사에 관한 노인 수용자의 태도 연구. 『광고연구』, 제37권.
- 김신미·김순이(2009). 노인의 노화불안과 삶의 질.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2호, pp.207-218.
- 김종갑·조광제·이영아 외(2009). 『일상속의 몸』. 서울: 쿠북
- 김태우(2012). 노년에 대한 현대의학의 개입: 문화인류학이 바라본 당대의 노년. 『서양사론』, 114호, pp.5-28.
- 이경숙(2011). 사회적 소수자로서 노인과 미디어 담론. 『한국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서울: 발전문화사, pp.189-208.
- 이기현·이동훈(2005). 『지상과 TV의 웰빙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 분석 보도자료.
- 이병관·김봉철·유의동(2003). TV광고에 등장하는 노인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문화적 분석. 『광고학연구』, 제14권 2호, pp.165-183.
- 이현정·박재용(2011). 노인의 TV 건강프로그램 시청과 건강행위 실천과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1호, pp.294-301.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
- 정진웅(2006).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제31권 3호, pp.751-766.
- 주창윤(1999).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수용연구의 관점. 김정기·박동숙(편).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4).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겨울호, pp.105-136.
- 최윤희(1990).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보건교육 전략.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7권 2호, pp.15-21.
- 한경혜(2000). 신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경혜·윤성은(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7권 2호, pp.299-322.
- 한혜경(2012). 의료와 미디어 산업의 노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젊음의 연장이 아닌 노년의 복원.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pp.59-85.
- 허민호(2012). 보건 관리 체계의 지형학적 분할과 신자유주의적 변형. 『경제와 사회』, 94호, pp.274-307.
- 현대경제연구원(2006). 『고령화 시대, 이런 산업이 뜬다: 고령화 시대 5대 산업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 Allen, R. C.(ed.) (1987).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 김훈순 역(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 Bell, A. & Garret, P.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2005). 『미디어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hris, B. (2004). *The SAGE Dictionary of Cultural Studies*. 이경숙·정영희 역(2009). 『문화연구사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Gordon, C.(1977). *Power/Knowledge*. 홍성민 역(1991).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
- Conard, P. (1992). Medicalization and Social Control.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pp.209-232.
- Estes, C. & Binney, E.(1989). The Biomedicalization of Aging: Dangers and Dilemmas, *The Gerontologist*, vol. 29, pp.587-597.
- Farmer, P. (2004). *Pathologies of power*. 김주연·리병도 역(2009). 『권력의 병리학』. 서울: 후마니타스.
- Foucault, M.(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홍성민 역(2006). 『임상의학의 탄생』. 서울: 이매진.
- Kaufman, S.(1994). Old Age, Disease, and the Discourse on Risk: Geriatric Assessment in U.S. Health Care,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vol. 8, pp.430-447.
- Kuypers, J. A. & Bengtson, V. L.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rmal aging. *Human*

Development, 16, pp.181-201.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Lupton, D. (2003). *Medicine as Culture: Illness, Disease and the Body in Western Societies*. 김정선 역(2009). 『의료문화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Minois, G. (1987). *Histoire de la vieillesse en Occident*. 박규현 · 김소라 역(2010). 『노년의 역사』. 서울: 아모르문디.

Moss, M. S., & Lawton, M. P.(1982). Time budgets of older people: A window on lifestyles. *Journal of Gerontology*, 37(1), pp.115-123.

Sontag, S.(1977). Illnesses Metaphor. 이재원 역(2002).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Thane, P.(2005). *The Long History of Old Age*. 안병직 역(2012). 『노년의 역사』. 서울: 글항아리.

Perry, M. G.(1999). Animated gerontophobia: Ageism, sexism, and the Disney villainess. In S. M. Deats & L.T. Lenker (Eds.). *Aging and identity: A humanities perspective* pp.201-212, Westport, CT: Praeger.

Peterson, R. T. (1995). The Portrayal of senior citizens by banks in newspaper advertisement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12, pp.95-106.

Peterson, R. T. & D. T. Ross.(1997). A content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mature individuals in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 pp.425-433.

Rowe, J. W., & Kahn, R. L.(1999).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ven der Geest, S. & Whyte, S. (1989). The Charm of Medicines: Metaphors and Metonyms.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3(4), pp.345-367.

Watkins, R. F., R. Coates & P. Ferroni.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an elderly Austral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pp.319-332.

Weinmann, G. (2000). *Communicating Unreality: Modern Media and the Reconstruction of Realit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Williams, A., & Nussbaum, J. F.(2001).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cross the life spa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투고일자: 2012. 11. 30, 수정일자: 2013. 01. 18, 게재확정일자: 2013. 01. 22)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tion of ‘The Medicalization of Aging’ in TV Health Programs: A Text Analysis of Focus on the ‘Vitamin’ in KBS

Ju-Mi Kim* · Hye-Kyoung Han**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criteria and signification of ‘aging’ constructed in media in Korean society that has entered aging socie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BS <Vitamin> the representative TV health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 <Vitamin> designs the measurable indexes of aging to rank the casts. And it emphasizes to the casts that cannot reach a certain level the support from medical experts or advanced medical technology. With such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ext, this paper found the ideological codes of the health programs. They contrast the elderly who have achieved successful aging from those that have not. They define the aged who have not practiced self-management or medical control to prevent aging properly as failure and also make fun of them. They draw aging that was not regarded as some kind of disease in the past into the area of medicine. Besides, the medicalization of aging regarded as an object for treatment may come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medical experts and also individualize social issues.

Keywords: TV health programs, Text Analysis, The Medicalization of Aging

* Ph. D. Candidate, Dep.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